

우리금융지주
출범식

2019.1.14.(월) 10:00부터
보도 가능

祝 辭

2019. 1. 14.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이

금융지주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하는 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주사 체제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금융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님,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주주 대표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 그간 우리금융의 역사

그동안 우리금융이 걸어온 길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역사’(歷史)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내 '최초'의 금융지주사로 출범한 우리금융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을 것인가는
줄곧 우리 금융시장의
최대 '화두'(話頭)였습니다.

2010년 이후
본격적인 경영권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수요 부족 등으로
번번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우리금융지주를 해체하고
자회사별로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금융지주의 해체는
정부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점업화, 대형화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금융지주를 해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를 통해
우리금융을 빠른 시일내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
국민의 재산인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16년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우리은행을 ‘민간의 품’에 돌려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이
정부의 통제 대상에서 벗어나,
‘자율’과 ‘창의’의 기반위에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3. 지주출범의 의의 및 당부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금융은
금융지주사 출범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마련된
‘자율경영’의 기반 위에서,

이제, 우리금융은
명실상부한 민영화된 ‘금융지주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고객에 대한 복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금융이 지주사 체제로 재출범하는 오늘,
저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 책임자로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듯한 금융지주사로 키워주기 바랍니다.

우리금융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주주와 임직원 여러분들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금융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편입을 통해
자회사간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우수 금융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금융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나머지 공적자금 회수 가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우리금융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의
바람직한 모습(象)을 제시하는
‘본보기’(典範)가 되길 희망합니다.

특히, 지배구조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운용하는 ‘관행’이 중요합니다.

우리금융은
증권사, 보험사, PEF 등
다양한 주주가 참여하는 ‘과점주주’ 체제라는
새로운 지배구조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큰 원칙하에
경영진, 과점주주,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협심(協心)하여, 우리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금융의 지주사 출범은
국내 금융산업이 더 크게 발전하는 데
‘촉매’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핀테크 등

일련의 기술 혁신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우리 금융산업이 앞으로 겪게 될
변화의 ‘속도’와 그 ‘폭’을 쉬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우리금융지주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발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향후 정부 정책방향

정부도 우리금융지주의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18.4%)을 매각하여,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잔여지분 매각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기조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완전’ 민영화된 금융회사로서
우리금융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5. 맺음 말씀

우리금융 주주 및 임직원 여러분!

앞서 저는 우리금융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역사(歷史)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금융의 역사는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중인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우리금융지주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역사를 개척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우리금융이 '민영화'된 '금융지주사'로서
웅비(雄飛)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금융의 지주사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